

여성건축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ast, Present, and Future of Women Architects

이재림 / 대한여성건축사회명예회장, (주)지담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Jae-rim

서 언

현황점검 및 개선 방향 모색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복지 수준은 경제성장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은 경제 소비의 주체에서 경제생산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며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고 여성의 사회 참여율 역시 10년 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성으로서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사회활동을 중도 포기하게 만드는 불평등한 현실은 여성인력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정부의 통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즉 현실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당국의 의지와 정책이 아직은 미흡한 듯 하다.

건축환경의 변화

과거 산업화 전략에 따라 고성장과 공급자 우선이었던 건축정책은 현재 관리 및 사용자 우선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과 환경이 공존하고 자연이 존중되는 친환경·그린네트워크 정책이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여성건축사를 비롯한 신진여성건축인들은 남성의 관점에서 조성된 환경에서 남녀노소가 피동적으로 살아왔던 기존의 상황을 비판하며 사용자 중심의 생활환경 창출을 목표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분야의 여성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환경의 변화는 미래의 여성건축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여성건축사들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건축기본법'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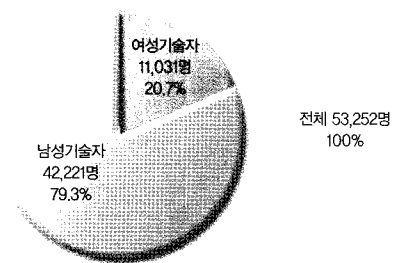
건축의 정체성 및 개념을 재정립한 '건축기본법'의 발효는 우리 여성 건축인들과 건축계가 힘을 합하여 탄생시킨 역작이라 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행위를 건설의 보조수단으로 여겨 여성과 신진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건축 본연의 가치와 건설의 상위 개념으로서의 체계를 확립한 일종의 「선언법」이다. 이 법령의 시행은 향후 여성건축사를 포함한 신진건축인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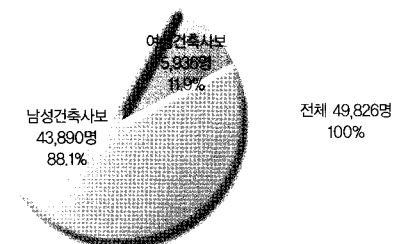
여성건축인들의 활동 점검

예전에 비해 건축관련학과에 진학하는 여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여성건축인력의 배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업계에서 차지하는 여성인력의 비중이나 영향력은 아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건축인력은 어렵게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 난 후에도 남성중심의 기업문화속에서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결혼·출산·육아·자녀교육의 의무로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2006~2008년까지 건축관련 전공자 중 졸업자는 남성 79~75%, 여성 21~25% 수준이며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남성 84.9%, 여성 79.0%로 여성의 취업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비율은 근소하지만 여성인력의 이직률, 취업만족도 등 세부적인 통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지듯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여성기술자는 전체 53,252명 중 11,031명으로 20.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자는 대학 졸업 후 1년, 전문학교 졸업 후 3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재직한 경력자를 말한다. 이 수치는 건축관련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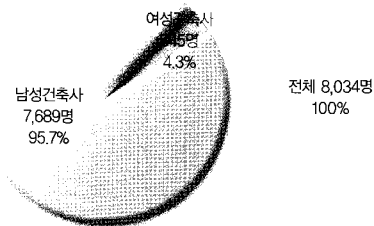


<그림 1> 기술자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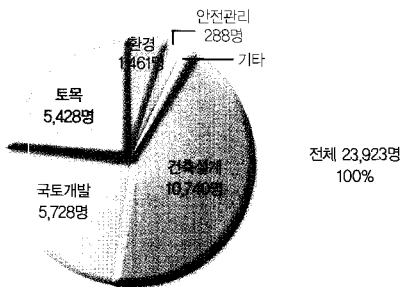


<그림 2> 건축사보 등록현황(대한건축사협회 2009년 8월)

건축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변천과 미래예측



〈그림 3〉 건축사 등록현황(대한건축사협회 2009년 8월)



〈그림 4〉 등록현황(한국건설기술인협회, 2008년)

자의 여성비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림 2〉의 건축사보 현황을 보면 전체 등록자 49,826명 중 여성건축사보는 5,936명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림 3〉의 건축사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등록자 8,034명 중 여성건축사가 345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위 세 그림을 종합하면, 여성건축기술자 비율은 20.7%, 여성건축사보는 11.9%, 여성건축사는 4.3%로 상위직에 올라갈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의 중도 포기는 퇴직으로 이어지고 복직의 기회도 용이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성건설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건축설계_ 10,740명(44.9%), 국토개발_ 5,728명(23.9%), 토목_ 5,428명(22.7%), 환경_ 1,461명(6.1%), 안전관리_ 288명(1.2%)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에 따른 것이므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인식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건설전문인력이 대부분이 건축설계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건설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건축인력이 경력 5년에서 10년 사이에 중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은 10년 이상의 경력자 수가 적어짐은 물론 소속집단을 이끌 수 있는 여성건축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전체 여성기술인력의 활동 공백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직장 내에 상위직 여성이 부족하여 롤 모델을 찾을 수 없고 목표와 동기 부여의 확신이 어려워 이직 및 중도 포기로 악순환 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에 진출하는 여성인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건축분야는 건축설계 등 몇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네트워크와 정보 부재 그리고 사회의 고정 관념이나 선입견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1960~2000년까지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근간으로 하여 개발성장시대를 지향 함으로써 택지공급 시스템, 도시지역의 개발, 주택공급 촉진, 기존 시가지 정비 등 건축물의 양적 팽창이 실현되었다. 반면에 지금은 과거의 성장방식에서 생긴 도시문제의 해결대안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정책들이 행정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은 물론 기반시설의 과부하와 공해 등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선언하며 국토관리시스템, 선계획·후개발, 복합도시개발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분담신도시의 탄생이 대표적인 예이다. 말 많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축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 시작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에 대한 국민 의식이 고조되면서 도시와 건축환경에도 이에 걸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성능평가

2006년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의해 '주택성능평가 제도'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단지에 적용되고 있다. 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제도는 설계기법은 물론 신기술·신공법·신소재 개발을 통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사안이 된 것이다.

친환경 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2002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그 후 2003년에는 주거복합 건축물과 업무용 건축물, 2005년에 학교, 2006년에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추가되었고 앞으로도 인증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건축의 질을 판가름할 척도이기에 설계기법 등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에너지 절약형 건축

2004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절전형 LED 등의 설비 설치가 권장되고 있다. 어느 순간 민간건축물도 이를 수용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도시경관 개선

경관은 주변과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관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경관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건축과 다른 시설물의 어울림을 위한 Total-Design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수용여부가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전문인들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수

단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건축설계에 치중되어 있는 여성건축사들에게는 업무영역의 확장과 디자인 경쟁력의 강화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건축기본법의 이해와 여성건축사의 역할

국가의 경제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축분야는 건설위주의 산업화정책이 추진되어 온 지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부침이 거듭되었다. 설계와 디자인 종사자가 대다수인 여성건축인들의 경우에는 자본논리와 시장경쟁이라는 틀속에서 자립기반도 갖추지 못한 채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다행히 인간의 다양한 삶과 거주방식을 존중해야 하고 공급자 위주의 생활환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건축계의 노력을 통해 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건축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물의 설계행위만을 규정했던 기존의 '건축법' 체계와는 달리 건축의 태생에서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을 건축의 행위로 인정하는 거시적 개념의 확장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건축의 조사 및 기획, 계획 등 건축물 축조 이전 단계와 설계, 디자인확인 업무, 감리, 시공은 물론 공공 디자인(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계획 포함), 도시경관, 친환경계획 등 건축의 포괄적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전 영역을 건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축기본법'에 의하면, 건축의 개념은 결과물의 총체적 탄생배경과 사후관리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며 이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이 건축사 및 건축전문가에게 위임되는 것이다. 이 법령의 시행은 모든 건축인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양질의 디자인이 담보될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삶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로 보아 앞으로의 건축은 감성과 여성성을 바탕으로 한 주거문화가 생활편의시스템(IT)과 결합된 복합체로 진화할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건축기본법'의 이해와 적용은 여성이며 소비자이고 생산주체자인 여성건축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곧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건축기본법의 취지 요약

- ① 건축에 대한 기본 이념을 국가가 새로이 정의
 - 건축설계, 감리에 한정된 건축개념의 확장
 - 기획, 계획, 설계, 감리, 조사검사,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실내디자인, 안전 및 사후관리개념 포함
- ② 국가 주도적 건축정책의 수립 및 실천
 - 건설정책의 하급 단위가 아닌 국가 정책목표로 설정
 - 건설의 상위 개념
- ③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와 전국 광역자치 단계별 건축위원회 상설

의무화

-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 도시에 광역건축정책위원회 설치 권장
- ④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정의
 - 국가정책과 공공성 우선
 - 건축주의 허가사항 임의적 변경 불가, 건축을 문화적 산물로써 인정함
- ⑤ 전문가의 창의성과 독립성 보장
 - 설계권, Design 합법화
 - 건축가, 설계사 등 유사어 사용불가
- ⑥ 건축문화 진흥촉진 및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화
- ⑦ 건축관련 제 법령 정비시 건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

결 어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우수한 여성건축인력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즉 작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작업효율을 높여 일에 대한 만족도와 자립기반을 갖추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건축관련 단체에서는 여러 경로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산, 육아, 승진, 재취업 등 근무조건의 개선, 직장 내 남성문화의 순화, 그리고 자유경쟁이라는 미명하게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개정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할당제의 도입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사이며 미래 자원인 친환경 건축, 자원절약형 건축, IT기반 건축 등으로 여성건축사들의 분야를 확대해야 하며 진입이 어려운 건축분야에는 새로운 관점을 접목시켜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는 급속 성장으로 인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여건에서 건축사들이 특히 여성건축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적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과거의 후유증에 더하여 규제의 명분아래 거대해진 프로젝트의 견고함과 불공정한 경쟁체제 때문에 신진건축사나 여성건축사들의 시장진입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건축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와 다가올 미래의 건축환경은 행복한 삶을 척도로 하는 친환경·친여성적인 패러다임의 구현에 목표를 둘 것이 분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건축인들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된다.

"여성"은 미래를 이끌 핵심 아이콘이며 여성성의 반영은 그 국가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기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는 여성건축사들이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